

올 3분기 전북 경제 전반적 '약세'

호남통계청 발표 결과

고용에서만 '호조세'
광공업생산 4.2% 감소
건설수주도 6.9% 감소
수출·제조업도 부진

올 3분기 전북지역 경제는 전 부문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고용에서만 호조를 보인 반면 생산과 건설, 무역 등에서 여전히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광공업생산은 기타 기계 및 장비(18.1%), 식료품(5.3%) 등은 증가했으나, 도내 주력상품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6.3%), 금속가공제품(-22.4%) 등이 감소해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단체·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는 감소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소매점(-3.0%)은 줄었으나, 대형마트(36.8%), 전문소매점(10.6%) 등은 증가해 1년 전년대비 1.1% 늘었다.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93만6,000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과 광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1.3%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고용률은 68.8%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교통(-3.8%), 주택·수도(-2.1%) 등의 가격은 떨어졌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2.6%), 음식·숙박(2.5%), 교육(1.9%) 등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7% 올랐다.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해 도내 건설업계가 극심한 수주난을 겪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2.2%), 토목(-35.4%) 모두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40.5%)은 증가했



17일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밖으로 걸어오고 있다.

나. 국내 외국기관(45.0%), 민간(-14.2%)은 줄었다.

올 3분기 전북지역 수출액은 총 15억 달러로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23.0%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종이제품(30.5%), 1차금속(18.7%) 등은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98.8%), 화학제품(-25.5%), 자동차 및 트레일러(-20.1%)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북지역 수입액도 총 9억달러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식료품, 1차금속 등이 줄어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했다.

올 3분기 전북지역 순유출인구는 1,122명으로 한 달 평균 370명꼴로 줄었다. 이 기간 도내 인구는 186만5,000명으로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이동인구는 모두 1,122명이 순유출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341명), 10대(-337명), 70대 이상(-60명) 순으로 순유출됐고, 10세 미만(311명), 60대(147명), 40대(118명) 순으로 순유입됐다.

이 가운데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순으로 유출된 숫자가 많았고,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에서는 인구가 늘었다. /인재용 기자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반대 10·기권 14명
야2당 추천 2명 특검 후보자 중 1명 박 대통령이 임명
특검 수사대상에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행적 등도 포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그간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

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뉴스1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매일 INDEX

4면 약혼 오거리 살인사건 '무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작년보다 어려웠다

국·영·수 모두 변별력 갖춰
국어영역에서 당락 가를 듯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해 보다 난이도는 다소 어려운 수준이지만 올해 6월과 9월 모의고사 수준과는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지문 개수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장문의 지문이 많아 집중력이 약하거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의 단문에 익숙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거나 생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문이과(A·B형)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된 국어영역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돼 당락을 가를 것이라 예상했다.

국어뿐 아니라 2교시로 치러진 수학도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과생이 치르는 수학 기형과 문과생이 치르는 수학 나형 모두 지난해보다 변별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또한, 영어도 어려웠다.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어영역은 올해에도 상위권 학생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탐구영역은 난이도가 지난

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수능 차분히 마무리
부정행위 4명 '결과 무효'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전북 지역의 경우 큰 사건사고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4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올해 시험 결과는 모두 무효처리됐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총 2만1064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날 도내 12개 시·군 62개 시험장(고사장)에서 수능이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자들 중 안타깝게도 4명의 수험생은 부정행위로 적발돼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시험자별로 보면 전주와 군산이 각 1명, 정읍이 2명이다.

전체 결실율은 지난해(9.7%)보다 다소 낮아진 9.1%로 잠정 집계됐다.

1교시 국어 영역은 9.01%, 2교시 수학 영역 8.64%, 3교시 영어 영역 9.60%, 4교시 탐구 영역 9.40% 등이다.

도, 쌀값 안정 위해 추가 격리 물량 매입

올 연말까지 8133톤

전북도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 가운데 추가격리 물량 8,133톤을 올해 말까지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수확이 낱알에서 이삭이 패는 상태 피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우선지급금(4

만5,000원/40kg)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중에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과 수급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올해 수매 예정인 총9만 8,000톤 중 공공비축미는 5만1,000톤, 시장격리 4만3,000톤, 해외공여 4,000톤 등이다. /고민형 기자

남원에촌 NAMWONYECHON BY KENSINGTON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명품 한옥 '남원에촌 by 켄싱턴' 그랜드 오픈!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남원 에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선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마다 혼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에촌 by 켄싱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